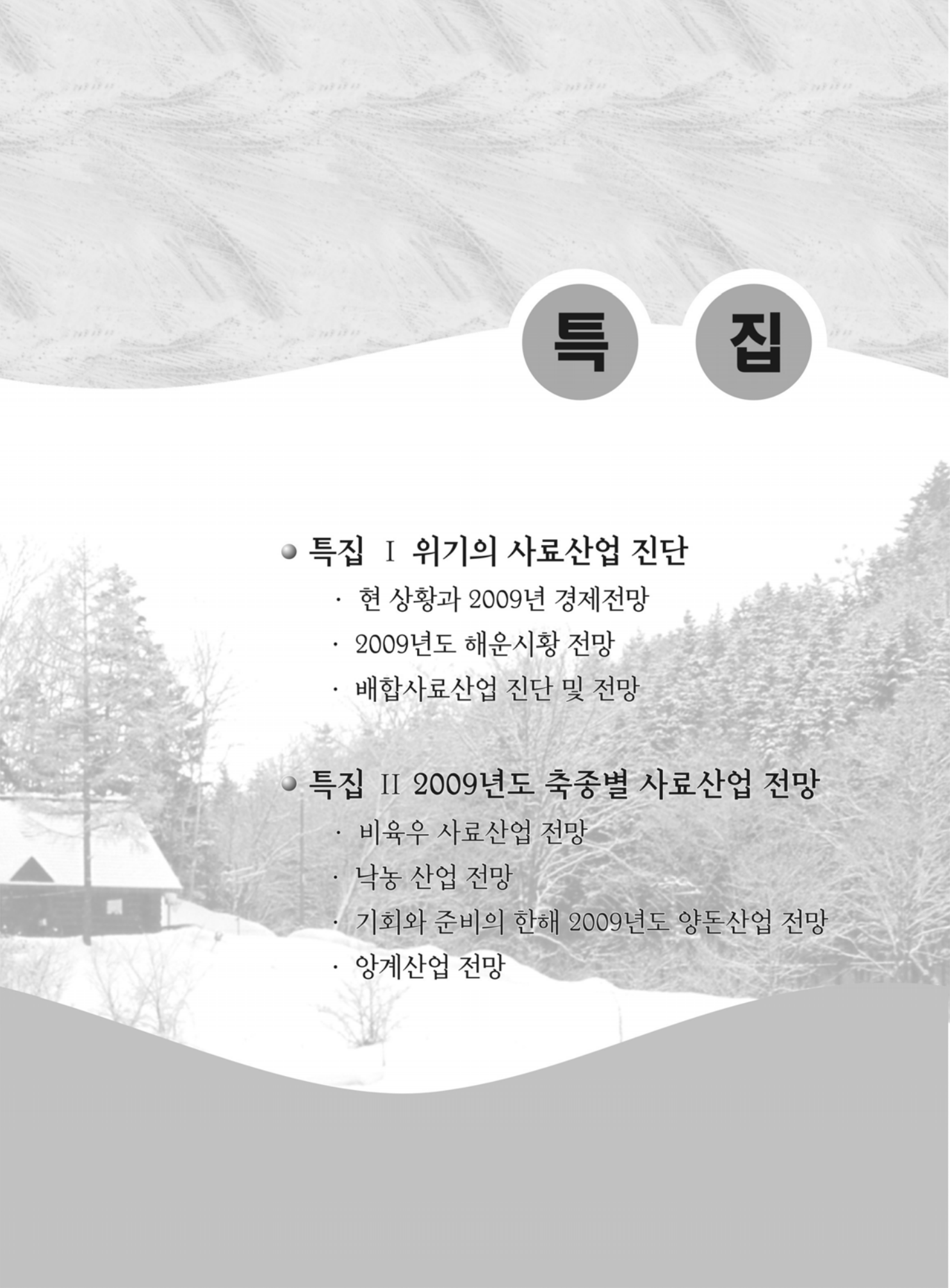






특

집

- **특집 I 위기의 사료산업 진단**

- 현 상황과 2009년 경제전망
- 2009년도 해운시황 전망
- 배합사료산업 진단 및 전망

- **특집 II 2009년도 축종별 사료산업 전망**

- 비육우 사료산업 전망
- 낙농 산업 전망
- 기회와 준비의 한해 2009년도 양돈산업 전망
- 양계산업 전망

현 상황과 2009년 경제전망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도입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금융위기를 넘어서 실물경제가 침체하고 있으며 불황의 장기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경제위기의 출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원인과 영향을 되짚어 보고 현재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세계 및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에 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 불황의 시작

2006년 들어 미국의 주택판매량이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경기가 둔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대출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출이자율의 상승은 이자상환액의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대출상황이 연체된 적이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상금리보다 2~4% 높은 이자율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은 2006년 1/4분기 12.0%에서 2007년 1/4분기에 15.8%로 상승하였고 2/4분기에는 17.0%까지 올라갔다.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는 실물경제로 전이하여 결국은 세계적 불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전 세계적 불황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우선 미국의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2000년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방금리를 6.5%에서 1.0%로 낮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감소하고 주택수요가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따라서 정상적인 금리 하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요자들도 주택매

입에 나서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주택 가격의 하락과 함께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미국 주택대출시장의 문제에서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을 포함하는 전체 금융권의 문제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미국 금융산업의 구조에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주택대출회사들은 보다 많은 대출을 위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여 유동화 하였고 자산유동화회사는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주택담보시장의 부실화는 연쇄효과를 타고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권의 불안은 신용경색을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도 주택시장의 침체라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2008년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주택담보 대출회사들의 부실화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곧이어 실물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유럽경제의 부진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증시가 하락하고 전 세계 실물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 2008년을 정리하며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2008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IMF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를 반영하여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작게는 0.8%포인트에서 1.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OECD 역시 2008년 세계 경제성장이 2007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지난 2008년을 정리하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우선 정리해 보기로 하자.

〈표 1〉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7년 ²⁾	2008년		2009년	
		IMF	OECD ¹⁾	IMF	OECD ¹⁾
세계성장률	4.9	3.7	1.4	2.2	-0.4
미국	2.2	1.4	1.4	-0.7	-0.9
일본	2.1	0.5	1.0	-0.2	-0.6
유로	2.6	1.2	0.5	-0.5	-0.1
중국	11.4	9.7	9.5	8.5	8.1

주: 1)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2) 2007은 IMF 통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 2008

OECD, OECD Economic Outlook, Update Nov. 2008

우리나라는 실질 국내총생산은 3/4분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 0.5% 증가에 그쳐 2004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비로도 3.8% 성장하는데 그쳤다. 제조업의 생산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생산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고 일부 서비스업종은 생산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소매판매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판매는 10월 전년 동월 대비 3.7%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투자이다. 설비투자 및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는 10월에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건설투자의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 금액은 10월에 전년동월대비 23.9%의 감소를 보여 2009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9~10월 중 조선 및 석유화학 부문의 호조 등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유지하던 수출은 11월 들어 중동지역을 제외한 해외수요의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는 공급과잉에 따른 DRAM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역시 해외생산 확대와 미국과 유럽지역의 수요 침체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들어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면서 소비자물가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생산자물가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입 물가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약세가 지속되면서 2/4분기 27.3% 증가에 이어 3/4분기에도 26.1%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 달러표시 수입물가는 3/4분기 27% 증가에서 10월 1.5% 증가로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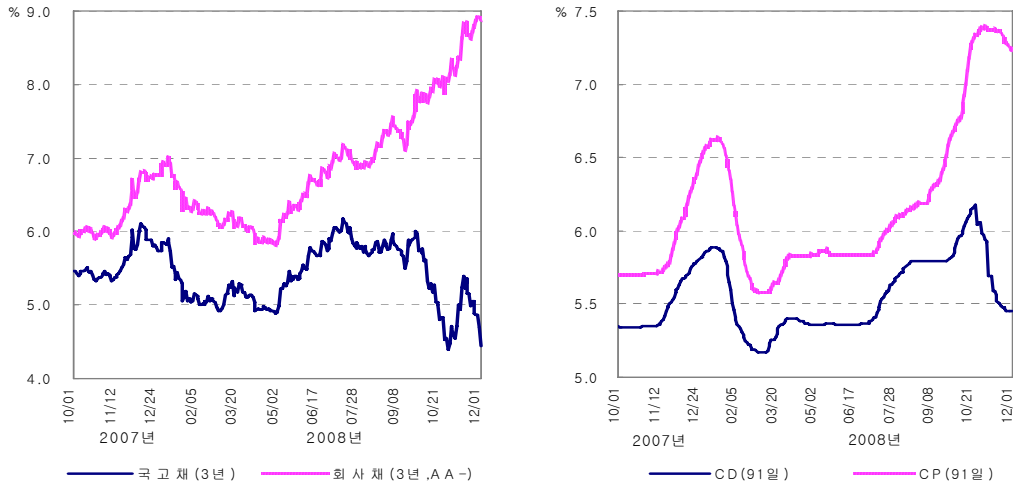
되었다.

10월 중 시장금리는 국내 신용경색 및 실물경제의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한은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스왑협정 체결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11월 중에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에 따른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도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채수익률은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원화유동성 경색으로 10월 이후 연 8%대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 우려 속에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CD 금리는 10월 중 은행의 자금사정 악화를 반영,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기준금리인하와 한은의 CD 매입 등에 힘입어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CP금리는 10월 이후 기업신용위험도가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11월중 금리인하 효과를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뿐아니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로 까지 미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의 구성이 발표되자 점차 하락세들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한편 10월 30일 한미통화스왑협정 체결 이후 크게 호전되었던 외화자금시장 여건은 11월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화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 달러화 차입여건을 나타내는 스왑베이스스(통화스왑-금리스왑)와 스왑 포인트(선물 환율-현물 환율)는 11월 중순 급격히

〈그림 1〉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2〉 국내달러화 차입여건

	10.10	10.16	10.29	10.30	11.04	11.10	11.21	11.28	12.04
스왑포인트 (3개월, 원)	△29.0	△29.0	△11.5	△9.0	△16.5	△17.0	△20.0	△22.5	△28.0
스왑베이스스 (1년, bp)	△490	△597	△452	△437	△492	△460	△526	△519	△472
CRS (1년, bp)	80	0	50	60	△25	6	△50	△40	△20

자료: 연합인포맥스

주: 스왑 포인트의 마이너스 절대값이 커질수록 외화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의미

확대되었으며 11월 중 CRS금리가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여 외화유동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11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외국인 주식매도 송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여 1,500원 선을 수차례 넘었지만 미 정부의 씨티그룹에 대한 구제금

용,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10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 기록, 미국 FRB와의 통화스왑자금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계획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1월 이후 원/엔 환율은 엔/달러 환율이 95엔대 내외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11월초 100엔당 1,297.73원에서 11.21일 사상최고치인 1,578.79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11월 이후 원/유로 환율은 달러/유로 환율이 1.24~1.30달러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대폭 상승하여 11.26일 1,942.74원으로 급등하였으나 12월 초순 1,860원대로 하락하고 있다(<표 3> 참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어려운 해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지난 2008년을 정리하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지난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더불어 확대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은 2/4분기 2.8% 성장에서 3/4분기 0.3% 감소로 크게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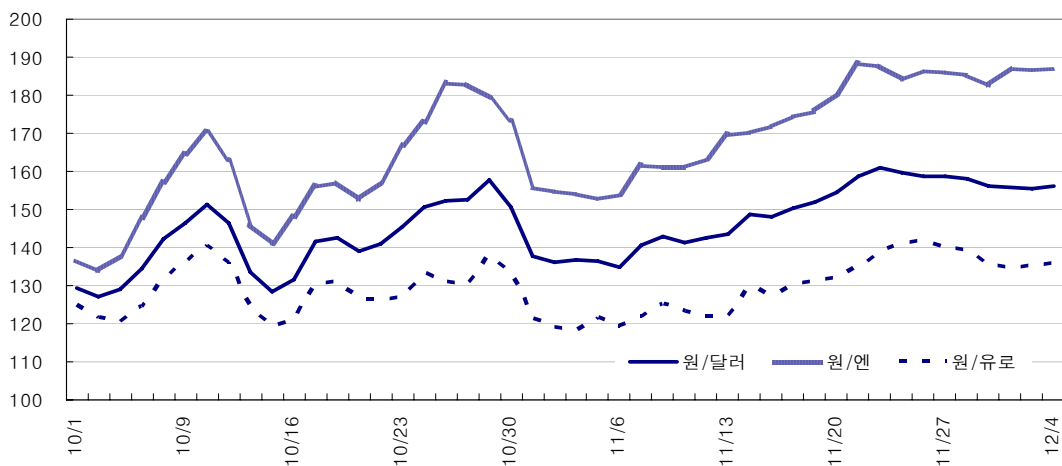
또한 노동시장의 여건 역시 크게 악화되어 2/4분기 5.3%였던 실업률은 3/4분기 6.0%, 10월에는 6.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 여파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긴급경제안정화법에

근거해 7,000억 달러 긴급지원 중 2,500억 달러를 금융기관 지원에 사용하였으나 실물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정책기조를 금융시장 안정화에서 소비자금융 및 자동차대출과 같은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미연준 역시 10월 들어 두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12월 3일 현재 미연방기준금리를 1%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8,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주택구매자 및 소비자,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에 나서기로 하였다. 나아가 차기 대통령당선자 오바마도 내년 초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녹색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7,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11월 26일 발표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3배가 넘는 수준의 총 2조 2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이 진행 내지 준비되어 있는

〈표 3〉 주요 통화 대비 원화 환율

(2008.1.2=100)



자료 : 한국은행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역시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3/4분기 국내총생산은 위안화 절상, 미국 등 해외 주요시장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올림픽 전후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2005년 이후 최저 성장률인 9.0%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률이 10% 이하로 떨어지자 중국정부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11/9) 인민은행 역시 9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하였으며 지준율 역시 두 차례 인하하였다.

또한 11월 들어 11년래 최대 폭으로 1년만기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인하하고(11/2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 관리지침을 폐지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금융위기와 고유가 및 유로화 강세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3/4분기에 0.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 역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11/27) 자금조달경로 등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에는 실패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금리인하에 부정적이던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물가압력이 완화되고 금리인하 여력이 증대되자 실물

경기의 침체기조를 막기 위해 10~11월 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12월 4일 0.75%포인트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상황이다. 일본 역시 수출과 민간건설투자의 부진 등으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0.4% 감소하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신용경색 및 수출둔화가 겹쳐 경기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본의 11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27.3%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는 도요타사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11/26).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하게 되었다(12/3). 한편 일본은행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엔고현상이 심화되면서 10월 31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0.5%에서 0.3%로 인하하였지만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가 “제로금리는 수익 및 거래량 감소로 은행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2009년을 기대하며

지난 2008년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시작으로 실물경제가 위축하기 시작한 한 해였다. 불행히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 2009

년 역시 상당히 어려운 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우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여파가 상당기간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국내 외화 유동성 부족, 환율변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 소비 및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고 국내 증시하락도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실물경제의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각종 소비 및 투자심리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시행하였고 정부 역시 9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4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기에 2009년은 경제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한 해이기도 하다.

2009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2%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7년 5.0%, 2008년 4.1%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수치이다. 특히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의 전이되는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 당분

간 지속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은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민간소비의 위축이 2001년 이후 최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매업체의 위축은 내년 미국의 가계 지출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의 수출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크게 줄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내년에는 성장세가 10% 이하로 둔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속되는 금융불안으로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내수진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가 예상되어 2009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증가세 역시 큰 폭으로 둔화되어 약 3% 내외가 될 전망이다. 국내경기는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상반기 중 경기저점을 통과한 후 하반기에 소폭 회복될 전망이며 이는 정책금리의 인하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물가안정과 함께 성장모멘텀 회복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어 2009년 상반기 중 약 0.5%p 이상의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한편 세계경제의

경기침체심화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금융시장의 시장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여줄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는 올 4/4분기의 8.3%에서 점차 하락하여 내년에는 7% 초반에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환율의 변동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08년은 국내 투자자들의 경기 변동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변동하였고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국 사정악화로 인한 달러화 송금이 환율변동을 크게 증폭시켰다. 이처럼 현재와 같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여건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변화 역시 그 영향이 크게 증폭되어 환율변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009년에는 글로벌 신용경색의 완화 속도, 국내 외화유동성 경색 해소 정도 및 경상수지 개선 폭 등이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듯 보인다. 글로벌 신용경색은 현재 주요국의 정책공조 및 대규모 경기부양노력 등에 힘입어 점차 완화될 전망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는 한미통화스왑과 더불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확대될 경우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각종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부실기업구조조정 및 경기부양대책의 성과가 내년 상반기이후 가시화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이 또한 환율의 하향안정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에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반기에는 1,200원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급속히 확대된 달러화 공급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경기침체의 속도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지나치게 확대된 달러화 공급의 영향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9년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용불안, 가계 재무구조 취약, 자산감소, 금융불안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소비 및 투자 심리 역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08/11/11)하고 있으며 OECD 역시 2.7%로 전망(08/11/25)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세’와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지금까지 나온 각종 경기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도 정부대책들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도 해운시황 전망



이 동 철
바다해운㈜ 사장

사료 주.부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량의 거의 100%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업계로서는 현물 해상운임과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년 후의 운임변동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해상운임은 원료 구매단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업체에서는 일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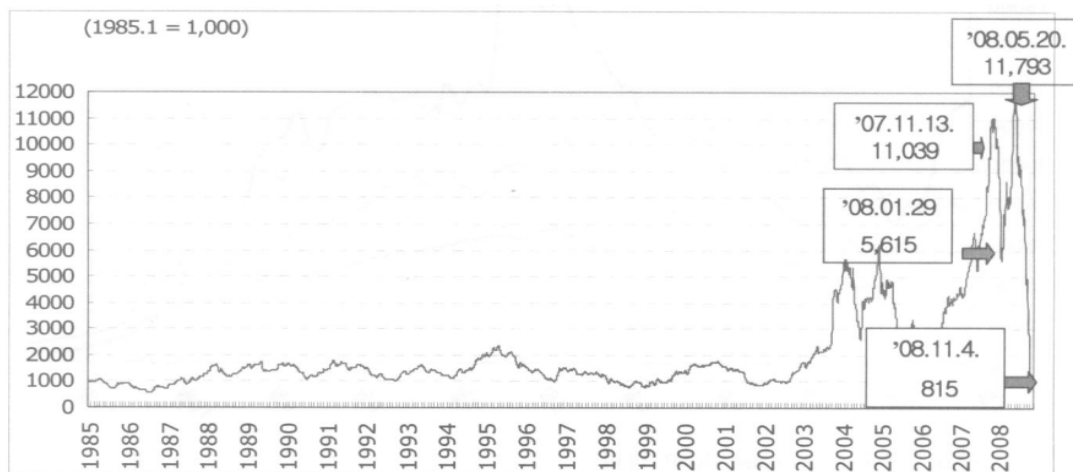
이에지난 한 해의해운상황을 되돌아 보고,

2008년 말 각 전문 기관들이 발표하고 보고한 2009년 예상을 정리 하면서, 해운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를 느껴 본지에 투고하게 되었다.

1. 2008년의 정리

2007년 11월 중순 최고치로 치솟던 BDI지수는(11,039 POINT)는 이후 2008년 1월 말 5,615까지 하락한 후 5월20일 역사적 고점인

Baltic Dry Index주이



자료: Baltic Exchange, KMI 정리

11,793 POINT까지 급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운송 수요나 선박의 공급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는 없었으나 선박의 미세한 증가와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하락을 시작, 지나친 상승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 겹쳐 하락폭을 키우기 시작 하였다. 곧이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대두 되었으며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며 BDI 지수는 12월초 현재 600선으로 급격히, 그리고 최대폭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의 건화물선 시황은 올림픽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기록적 상승과 이후 급락장세를 가져온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중국경제의 영향

중국경제의 호황과 주요 원자재(철광석, 석탄)를 올림픽 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해상 수송 수요의 급증 및 올림픽 이후 물동량의

필연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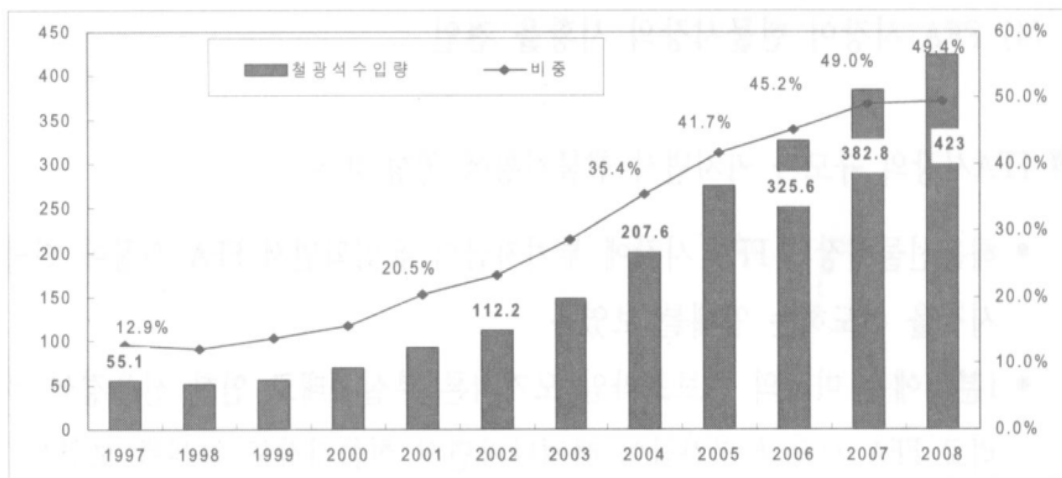
실제 2008년 1월부터 9월 사이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3억 4,000여 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하였으며 이후 10월 수입량은 3,000여 만 톤으로 전년 동기 비교하여 2.8%로 증가 한 수치지만 2008년 중에는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브라질 및 호주발 11/12월 철광석 선적 예상 스케줄이 25% 감소했다.

(2) FFA의 부작용 및 심리적 요인

투기자금의 참여로 인한 FFA(FORWARD FREIGHT 운임선도거래) 지수의 급등과 이로 인한 현물시장의 추종적 상승

2008년 초 시황개선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에 따라 현물시장과 FFA시장이 동시 상승하면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운임현물 시장은 해상운임의 선물 격인 FFA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의 뚜렷한 변수가 없음에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과 비중



불구 상승하여 왔으며 대략 USD1,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FFA시장이 투기 금융 및 투자 은행이 주도한 후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이 같은 세력이 철수하면서 급락 장세를 가져왔고, 기록적 호황과 이의 지속에 대한선주들의 기대감이 작동하며 해운시황에 전반적인 거품이 형성되었다.

최근 FFA 무리한 거래로 인한 해외 유력 해운회사들이 DEFAULT를 선언하면서 연이은 해운회사들의 부도 공포에 직면해 있다.

(3) 선복공급량

2008년 신조선(BULK선기준)의 완공 인도량 및 해체량은 예년과 비교하여 확연하지 않으며 수요적 측면의 변수로 인하여 등락

(4)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해상물동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한 해운경기의 하락은 필연적이었고 이는 시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 2009년의 전망 (BULK선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해운시황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상 물동량 증가세와 선복 공급량이라 할 수 있으며물동량 증가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 사이에 부상한 중국변수 또한 고려의 대상이다. 최근의 폭락세가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2009년 시황은 침체될 수 밖에 없으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 요인들을 짚어본다.

(1) 수요측면

2008년 BULK화물 물동량은 30억7700만 톤으로 전년대비 4.0%증가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2001년 8.0%, 2005년5.2%, 2006년 6.8%, 2007년 5.5%에 비하여 낮았고 2009년 예상치는 2.7%증가한 약 31억 5,900만 톤으로 전망, 예년과 비교하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화물선 공급량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DWT,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주잔량(A)	23.7	31.6	55.8	68.5	75.5	102.4	238.9	297.8	-
신조선발주량	8.9	22.2	35.8	32.6	30.4	52.9	161.1	77.1	-
완공인도량	20.5	14.3	11.6	19.6	23.4	26.0	24.7	27.0	66.6
해체 및 상실량	8.1	6	4.2	0.5	1	2.5	0.6	1.5	2.8
총선박량(B)	286.6	294.6	302	322.7	345.1	368.5	392.6	424.5	493.0
수주잔량비율(A/B)	8.3%	10.7%	48.5%	21.2%	21.9%	27.3%	60.1%	70.1	-

주 :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

자료 :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2008, 11

해상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5대건화물	1,311	1,727	1,849	1,974	2,064	2,133
	10.0%	6.5%	7.1%	6.8%	4.6%	3.3%
마이너건화물	749	899	955	985	1,013	1,026
	4.0%	2.7%	6.2%	3.1%	2.8%	1.3%
세계 전체	2,060	2,626	2,804	2,959	3,077	3,159
	8.0%	5.2%	6.8%	5.5%	4.0%	2.7%

주: 1.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임

2. 5대 건화물은 철광석, 석탄, 곡물,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인광석 등임

자료: Clarkson, Drt Bulk Trade Outlook, 2008, 11.

주요 세가지(철광석, 석탄, 곡물) 화물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철광석

2009년 철광석 해상 물동량은 10월 말, 2008년 대비8.0%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철강업체가 잇달아 감산 계획을 발표한 11월 예측치는 6.0% 증가에 불과한 8억 8,500만 톤으로 이는 2002년 이후 최저치이다.

2) 석탄

2009년 석탄 해상물동량은 약3.4%증가하

여 8억 2,100만 톤에 달 할 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의 수출이 중단된 대신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의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물동량 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세계각국이 경기침체로 인해 전력수요가 감소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력, 풍력 등 대체 발전이 활성화되며 철강업체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 곡물

미국 농무부는 2008/2009년도 전세계 곡물 추정생산량을 22억837만 톤으로 전년보다 8,890만 톤(4.2%) 증가하지만 해상물동량은

전세계 곡물생산 및 교역량 추이

단위 : 백만톤

구분	곡물연도	생산	공급	수출	소비	연말재고
세계	2002/03	1816.81	2352.92	241.19	1909.84	443.08
	2003/04	1844.50	2287.58	235.57	1941.67	345.91
	2004/05	2043.92	2401.88	241.22	1993.34	408.54
	2005/06	2009.62	2418.16	248.71	2023.40	394.76
	2006/07	2005.90	2394.64	259.98	2053.64	341.01
	2007/08	2119.47	2460.47	269.34	2108.56	351.91
	2008/09	2208.37	2560.38	264.28	2183.51	376.7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08, 11

재고량의 증대로 2억 310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2.9%감소를 전망하였다

국가별로 5대 수출국 중 호주와 EU의 수출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이 감소되는 것은 근년 들어와 곡물을 식량 자원화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앞다퉈 재고량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공급측면(BULK선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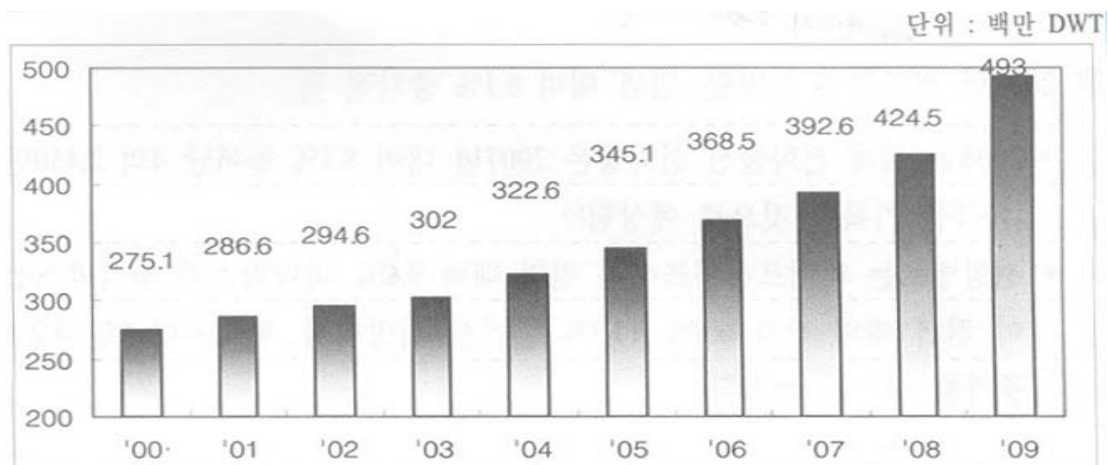
2008년 세계 BULK선 선박량은 2007년 대비 8.1 %늘어난 4억2400만 DWT기록 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6.2% 증가한 4억 9,300만 DWT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계속된 해운 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선주들의 기대감 작동에 의한 신조선 발주가 폭주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9년 완공 인도량은 전년대비250.4%증가한 6,660만 DWT수준이 될 전망이다. 모든 선형이 급증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CAPE SIZE와 HANDY SIZE가 전년대비 각 359%, 171%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들어 신조 발주량은 2007년 비교, 감소가 전망되고 이는 2007년 발주량이 급증한 원인 외에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가 확산되면서 선박금융 자금이 대폭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신조선(BULK선) 발주계약 취소규모도 최근까지 241척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중국 조선소에서 취소된 선박은 197척으로 전체의 82 % 에 달하고 이는 공식 통계에 집계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 세계 조선 산업의 신조선 수주 잔량 중 약50%가량이 낮은 신용도의 조선소와 관련되어 있거나 금융상의 취약성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어 계약 취소 사태의 확산 가능성

세계BULK선 선박량 추이 및 전망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

자료: Clarkson, Wolrd Shipyard Monitor, 2008, 10.

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 주요 조선소에 신조선 수주가 감소하고 기존 계약의 취소사태가 확산 됨에 따라 세계 해운 시장에서는 신조선 인도량이 점차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의 수급 조절 효과가 예상된다.

선주들은 최근 발주량 증가가 이루어 지면서 이에 따른 해체량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해운시장에 진입한 선주들은 금융상 문제 및 고철가의 폭락으로 인하여 노후선박들을 적시에 해체하지 못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선박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2009년 노후선박의 해체량은 전년대비 약 87%증가가 예상되나 완공 인도량의 증가가 급격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상쇄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BULK화물선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09년 선박 과잉 공급률은 1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정책공조로 조속히 수

습될 경우 수송수요가 증가되어 과잉 공급률은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BULK화물선 운임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이후 대규모 신조선 인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해상물동량은 오히려 감소되어 BULK화물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수급변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 경제위기는 BULK화물선 시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2009년에 악화 또는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수요측면의 수송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신조 발주량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지만 인도 예정량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박공급이 수요를 초과 할 것이다.

2009년 BULK선 수급 변화요인

구분		주요 변화 요인
수요 측면	상승 (회복) 요인	• 중국의 4조위안(775조원) 경기부양정책 실시 • 오바마, 미국 인프라건설 투자 지사 • 북미 곡물 운송 수요 • 각국 경제정책 공조 성공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탈출 • 각국 정부, 내년 초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실시 예상 •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 원자재 수요 증가
	하락 요인	•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실물경기 부진으로 물동량 감소 •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장 개설의 어려움 • 철강산업 위축으로 철광석 운송수요 감소 •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멘트/철강제품 운송 수요 감소 • 기후협약관련 화력발전소 비용 감소
공급 측면	상승 요인	• 운임과 용선료 하락으로 노후선 해체 증가 • 불경기로 인한 신조 발주 취소 • 중소 조선업체 부도로 인한 인도 지연 • 해운기업 부도로 인한 일부기업 퇴출로 가용선박 제한
	하락 요인	• 인도량 증가로 선박공급 과잉(과잉률 13% 추산) • 유조선 단일선체 퇴출로 인한 선박증가 우려

현재의 BULK화물선 시황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 원인이지만 2009년 이후에는 공급측면요소가 가세되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변화되어 장기 시황조정기 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9년 2/4분기 이후 일정 폭 반등 예상되

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황여하에 따라 단기적은 등락은 있을 것이며 큰 폭의 상승은 무리이다.

BULK 화물선SIZE별 운임 및BDI전망은 아래와 같다.

CAPE SIZE 운임과 용선료 전망

단위 : US\$/톤, US\$/day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08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4/4 ^{e)}	1/4	연평균	연평균
운임/ 브라질-일본 165,000DWT	63	87	66	14	10	11	19	22
용선료/ 1년/ 150,000DWT	105,346	127,558	109,769	18,214	11,625	13,938	21,188	24,625

주: 1) 4/4*는 11월 14일까지 실적치
2) 4/4^{e)}는 패널설문조사 결과

PANAMAX 운임과 용선료 전망

단위 : US\$/톤, US\$/day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08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4/4 ^{e)}	1/4	연평균	연평균
운임/ 캐나다-일본 70,000DWT	38	45	36	13	10	12	16	17
용선료/ 1년/ 파나마크스평균	55,923	63,827	50,423	10,393	8,625	10,000	13,063	14,125

주: 1) 4/4*는 11월 14일까지 실적치
2) 4/4^{e)}는 패널설문조사 결과

HANDYMAX 운임과 용선료 전망

단위 : US\$/톤, US\$/day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08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4/4 ^{e)}	1/4	연평균	연평균
운임/ USG-일본 49,000DWT	109	123	107	40	29	32	43	43
용선료/ 1년/ 핸디마크스평균	47,000	51,192	45,500	13,250	9,300	10,800	14,800	15,300

주: 1) 4/4*는 11월 14일까지 실적치
2) 4/4^{e)}는 패널설문조사 결과

SIZE별 향후 INDEX전망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08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	4/4 ^{e)}	1/4분기	연평균	연평균
BDI	7,343.3	9,751.3	7,123.4	1,510.6	1,035.7	1,166.4	2,171.4	2,357.1
BCI	10,190.0	14,821.0	10,533.6	2,074.0	1,091.7	1,366.7	2,220.0	2,600.0
BPI	7,248.5	9,227.1	6,747.6	1,237.5	956.8	1,110.0	1,476.0	1,600.0
BSI	4,807.5	5,762.2	4,362.5	1,134.5	802.0	950.0	1,366.0	1,510.0

주: 1) 4/4^{*}는 11월 14일까지 실적치

2) 4/4^{e)}는 패널설문조사 결과

4.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 정리

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래표는 각 기관들이 예상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도 대부분의 관련 기관들은 2009년 이후 장기시황 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없는 한 장기 약세

주요 기관들의 2009년 BULK선 시황전망

발표기관	시황전망 내용	발표시기
Clarkson	- 세계 경제침체로 내년도 건화물 운송 수요 3% 상승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신조선 인도 증가로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경제 상황이 주요 변수이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공급증가로 펀더멘탈 약화로 인해 시황 액세 보일 것	'08.11
NYK	- 공급이 수요를 초과, 시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듯 - 경기악화시 2010년 초과공급 더 많아 질 듯	'08.10
중국항운교역	2009년 BDI 1,500~3,500	'08.11
J.P. Morgan	- 건화물 운송 수요 2009년 7.2%로 감소 선복공급은 10.0%증가, 2012년까지 선복량 초과 공급 - 건화물선 시장 향후 4~5년 불황기	'08.11
ICAP	원료탄 등 건화물 운송수요 꾸준하나 선복공급량 많아 2010년까지 하락세 유지할 것	'08.10
UBS	철광석, 석탄, 곡물 등 건화물 운송 수요 2009년 이후 감소	'08.11

배합사료산업 진단 및 전망



이 무 영
한일사료(주) 사장

■ 서 론

2008년은 우리나라의 사료업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한해로서 1997년말 IMF 때보다 더 힘든 한해였던 것 같다. 2007년부터 시작된 곡물가 폭등과 원료의 수급불안, 4월의 AI 발생,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그로 인한 화물 운송 업계의 파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국산 축산물 시장의 위축, 원료 중 멜라민 혼입사건, 그리고 최근의 환율 급등의 문제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에 부족함이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축산물 시세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따라주지 못하고 하락하다 보니 사료업계의 경우 축산농가가 도산하여 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 HACCP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던 우리 사료업계로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9월 사료 원료중 멜

라민 검출 사건은 사료원료의 신규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사료관리법이 개정되는 등 업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이 다시 찾아 왔지만, 2009년에는 축산농가와 사료업계, 일반 소비자가 모두 다시 기사회생(起死回生)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껏 겪은 어려움을 몇가지 돌이켜 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전망과 우리의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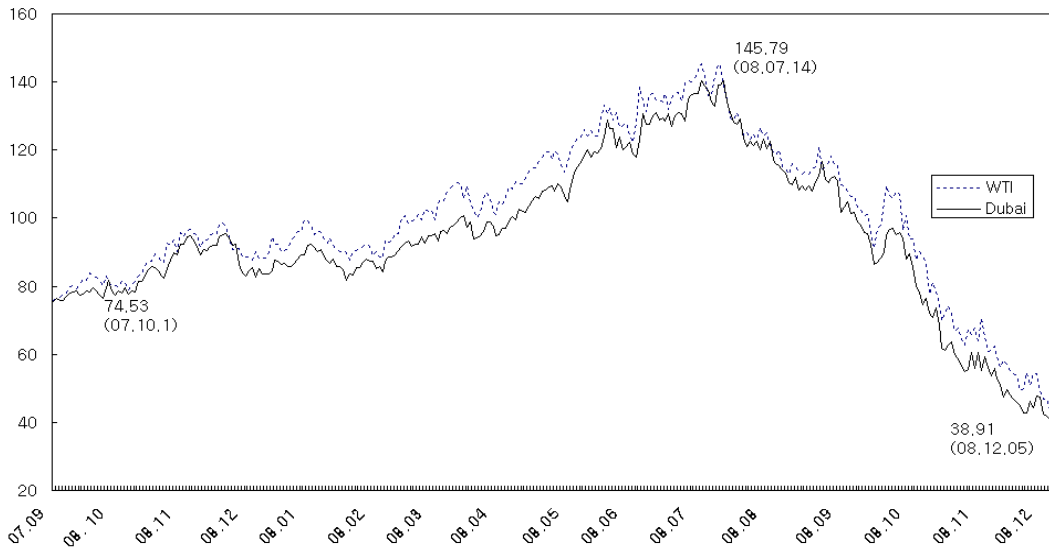
■ 원료가격의 변화로 인한 사료가격의 변동

1. 원유가격의 변화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폭등은 2008년 7월 14일 WTI(서부텍사스유)가 \$144.49/B를 기록 한이후 급락세로 돌아서 2008년 12월 현재 WTI는 배럴 당 \$50대를,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 Gulf 만에서의 선임이 \$140/ton에 달하였지만 지금은 \$28/ton으로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다.

국제 유가의 폭등은 산업 전반에 영향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출처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co.kr)

을 주었는데, 특히 우리 축산업계에는 난방비와 운송비의 폭등을 초래하였고, 고가의 선임비, 운임비는 수입 사료원료의 수급을 불안하게 함과 동시에 사료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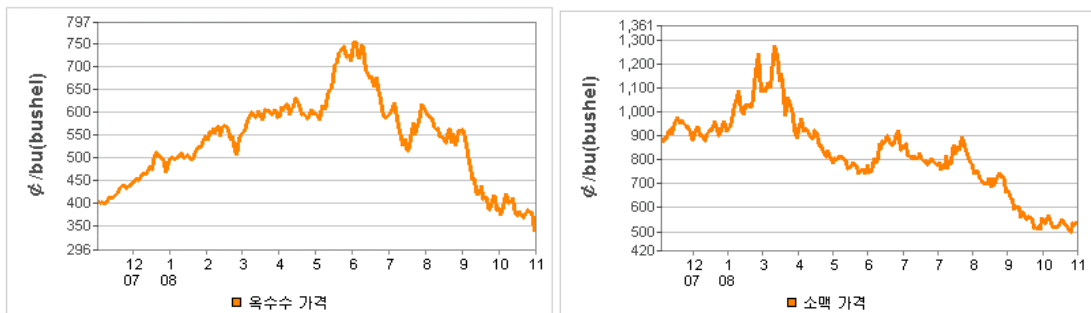
특히 6월의 화물연대 파업은 배합사료 공장의 운영에도 큰 타격이었지만, 많은 이해

와 협력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 축산농가에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2. 원료 가격의 변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생산 등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

〈그림 2〉 원료가격의 변화



출처 : 국제 원자재 Korea PDS DB

이 폭등 된 것과 소맥의 부재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사료 원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의 수급 부족과 가격폭등은 사료비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중요 원료 중 하나인 소맥의 부재는 타피오카 등 근래에는 사용하지 않던 원료가 다시 국내로 수입되고 국산 보리가 사료에 유용히 사용되기도 했다. 이로써 사료 자원의 국내 생산에 대한 의견도 다시금 거론되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여파가 있었다.

3. 환율의 변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 한숨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2008년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환율의 상승이 시작되었다. 2008년 7월 1,00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2008년 11월 25일 현재 1,498 원/달러로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다. 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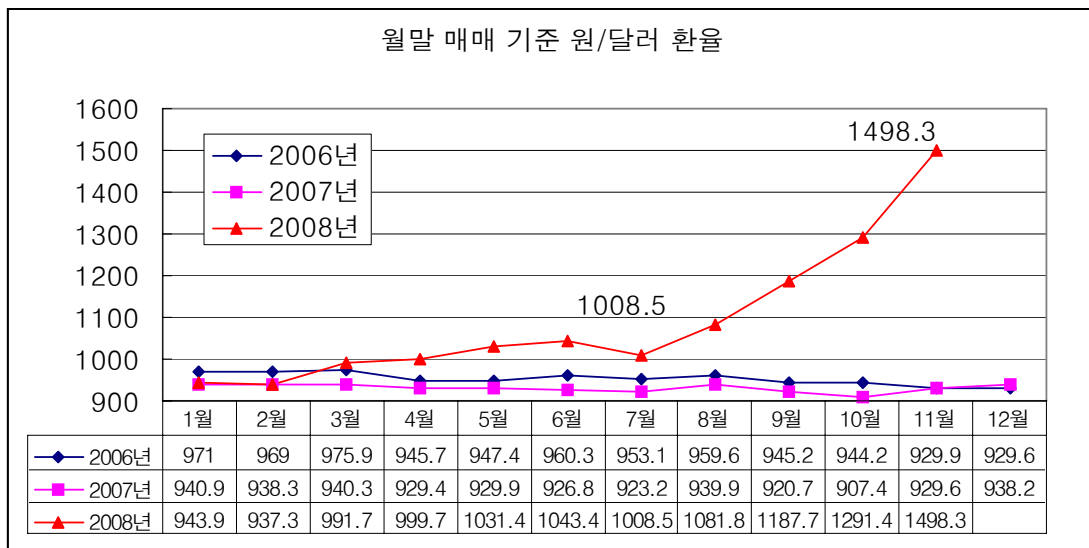
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료 업계로서는 심각한 환차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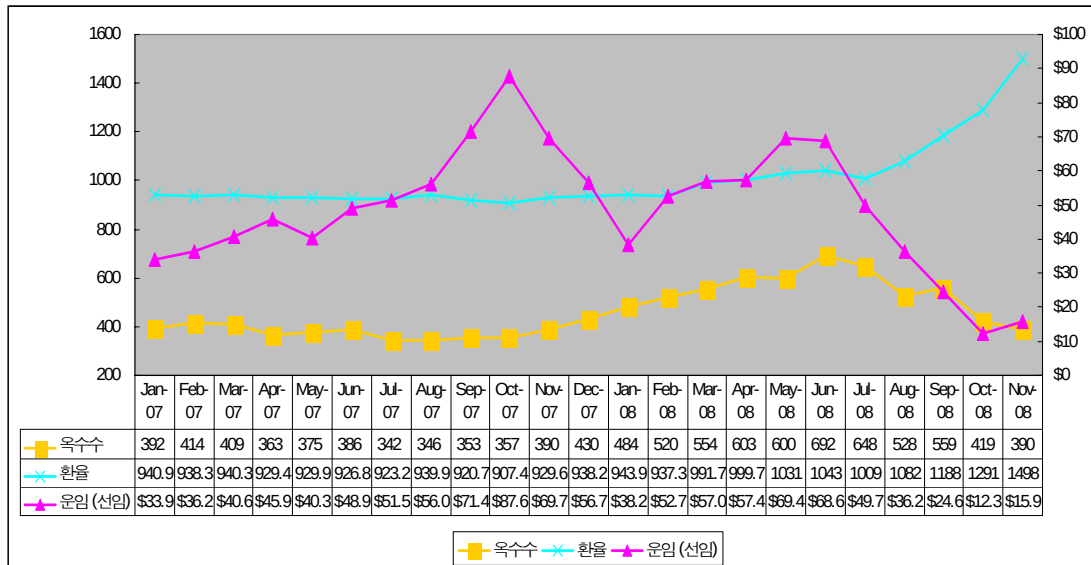
4. 원료 가격변화, 운임, 환율에 의한 사료가격의 변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사료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가지 요인인, 원료가격, 운임, 환율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원료가격과 운임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안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공교롭게도 환율만은 같은 시기임에도 반대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고가의 사료가격이 안정되어야 할 시기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되었다.

특히 CBOT(시카고 곡물 선물시장)에서 발표되는 곡물가격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실제로 적용되는 곡물의 가격은 3개월~6개월의

최근 3년간 월말 매매 기준 원/달러 환율 (2008년 11월은 11월 28일 고시기준.)





차이가 있고, 기존 구입한 고운임, 고가의 곡물이 아직 국내에서 다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운임, 저가의 곡물을 국내에 도입, 배합사로 가격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산업 전망

1. 일반 경제 전망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일반적으로, 내년의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간헐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009년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외 환경은 2001년 이후 가장 악화된 상황으로,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회복세로 전환할 내부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2009년의 한국경제는 내수회복 지연, 수출 신장세 둔화로 경제 성장률이 3.6%로 2008년 4.4%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중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2008년 민간 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소비부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장기적 소비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들고 있다.

2008년부터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물가 불안, 고용개선 지연에 따른 고용불안 및 증시 부진과 금융자산의 가치하락 등에 의한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2008년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 4.9% 상승, 하반기 5.4% 상승이 예상되며, 2009년 소비자 물가는 연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과 장기적 소비부진



주 1. *는 소비비중함수에서 각 요인들의 추정계수

2. **는 미래소득불안감함수에서 각 요인들의 탄력성

2. 사료산업 전망

사료산업의 전망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곡물 생산량은 소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소비량도 함께 증가해 곡물 자체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은 크지 않고 현재의 가격에서 안정되어 갈 것이다.

다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데,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환율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 11월 현재 사료가격은 곡물가와 운임비보다 환율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 환율이 안정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곡물의 세계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2,005.78	2,118.12	2,194.96	2,207.71	4.2	0.6
공급량	2,394.49	2,458.54	2,541.38	2,555.25	3.9	0.5
소비량	2,054.08	2,111.00	2,174.11	2,183.13	3.4	0.4
교역량	259.94	268.52	264.10	263.15	△2.0	△0.4
기말재고량	340.41	347.54	367.27	372.12	7.1	1.3
기말재고율(%)	16.6	16.5	16.9	17.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 10, 2008.

◆ 할로의 모색

1. 사료의 원자재 수입 주요국 기지 확보

1) 미국 사일로, 엘리베이터 등 인프라 구축
사료 원료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원료인 옥수수과 최근 이용량이 증가한 DDGS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사료원료 구입처로서의 미국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료원료를 구매하는 것은 곡물의 생산자로부터가 아니라 곡물 유통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서 거론 하였듯이 2008년 상반기까지의 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선임비도 함께 폭등, 곡물의 수급이 불안정한 와중에 원료 가격까지 인상되어 사료업체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최근, 농협이 미국 오레곤주에 조사료 공장을 세우고, 직접 공동구매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내에 인프라 구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조사료에 한정된 품목이지만, 언젠가는 차후 일반 사료곡물의 직접 구매도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잘 알려진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곡물 산지와 인접한 곳에서 직접 구매, 하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고 산지에서 직접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자료와 준비를 통해서 투자를 준비하는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사료원자재 수입국 다변화

2008년 이전 우리나라의 사료원자재 수입국은 주로 미국(옥수수, DDGS), 중국(옥수수, 소맥, 식물성 박류, 강피류), 필리핀(야자박), 인도(대두박, 채종박), 말레이시아(팜박), 브라질(대두박), 칠레(어분), 태국(타피오카)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중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동남아와 남미의 수입량도 적지 않으나, 주원료보다는 보조원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원료인 옥수수와 소맥의 공급이 불안정하고 선임비가 급등했던 지난 2008년 상반기의 위기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료 수입국의 다변화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동남아시아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가깝고 원료의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재 주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타피오카, 야자박, 팜박 등 일부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와 같은 현재

국가간 무역이 왕성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용 가능한 옥수수, 수수, 쌀, 타피오카 등의 사료자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식량자원 생산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한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조사와 적절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2)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비교적 거리가 멀고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커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경우 기후조건도 옥수수와 같은 열대성 작물이나 해바라기와 같은 사료자원 생산에 유리하고, 서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우리나라의 운송조건도 비교적 유리하다. 남,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는 마다가스카르(섬),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등이 있으며 아직 농작물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교역을 문의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이 역시 어느 정도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중남미

중남미에서는 이미 브라질에서 대두박,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칠레에서 어분이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가장 먼 나라들이지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작물의 수확시기가 북반구의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인 장점이 있다. 또한 커피 생산량 1위인 브라질에서는 커피박과 같은 부산물이 생산되므로 윤임비 등을 고려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용가능 할 것이다.



MSY 14두와 18두, 20두일때의 생산비 및 수익을 비교

MSY	14두	18두	20두
폐사율	30%	20%	10%
총사료요구율	3.89	3.81	3.76
평균 사료단가	532.9	521.0	517.0
사료비(원/두)	238,441	228,569	223,943
사료비 외 비용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84,198	84,198	84,198
두당 생산비	322,639원	312,767	308,141
지육 kg당 생산비 (지육률 70%기준)	4,183원	4,055원	3,995원
비육돈 1두당 수익 (지육가격 :4,000원/kg)	-14,091원	-4,235원	385원
연간 농장 비육돈 출하 두수	2,800두	3,600두	4,000두
연간 농장 비육돈 출하 수익	-58,942,653원	-17,172,925원	1,538,075원

출하체중 : 110kg, 모든 200두 기준, 2007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자료 일부 참조

3. 생산성의 향상

1) 양돈 MSY 13~14두 일때와 18~20두 일때의 경영비 비교

양돈의 경우, 모든 100두~ 200두 규모의 일괄 사육 농장에서 110kg의 비육돈을 출하한다고 가정하고 설계한 생산비 모델이다. MSY와 그에 따른 사료 섭취량만을 바꾼 모델로, 경영자마다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나의 예시로만 보겠다.

MSY 14두의 경우 지육 kg당 생산비가 4,183원인 반면, MSY 20두의 경우 3,995원으로, 지육가 4,000원으로 가정하면 (2008년 하반기 현재 유래없는 고돈가가 유지되고 있으며, 11월의 전국 평균 지육가격은 4,500원 대였다.) 연간 총수익은 MSY 14두인 농장의 경우 -39백만원이고 MSY 20두인 농장의 경우 1백 50만원 선으로 계산되어 MSY 20두의

성적이 손익분기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성이 수익과 연결되는 단순한 예로서, 사료가격이 하락되지 않는 한 사양 관리만이 농장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하반기와 같은 고돈가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농장이 수익을 남기겠지만, 당장 내일의 시장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속에서 언제까지나 돈가의 고공행진만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2) 낙농 2.5 산차와 5산차의 경영비 비교

우리나라에서 낙농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중 첫째는 높은 사료비, 둘째는 밀집 사육에 의한(사육 공간 협소에 의한) 운동 부족과 질병발생, 셋째는 생산량 제약(우유 수매량 제한), 그리고 넷째는 분노 처리의 어려움이다. 즉, 생산량 제한과 더불어

어 사양관리 비용이 높다는 것이 낙농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착유우의 경제수명을 연장시켜 산차를 연장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낙농가의 평균 산차는 2.5산차로, 젖소의 산유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 소위 경제 산차라고 일컬어지는 3산차 이상까지 사육하는 농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평균 산차가 2.5산차인 농장의 경우 5산차인 목장보다 후보우 육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육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요구되고, 육성우에 의한 추가적 분뇨 발생도 생기며, 육성우 사료비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또한 짧은 착유 기간동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착유를 하게되고, 이로 인한 유방염 발생, 체세포의 증가로 원유의 품질이 낮아져 낮은 유대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착유우의 경제수명이 짧은 원인으로 1위는 번식장애(53%), 2위는 유방염(16%) 이었다. 2008년 1월, 축산신문)

목장의 평균 산차를 5산차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후보우 육성 관리 비용이 낮아지는 것 이외에도 육성우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착유우의 사양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건강한 착유우 관리가 가능하며 착유우에게 과착유를 하지 않아 기준 유량을 맞춰줄 수 있다.

요즘처럼 사료 및 낙농 기자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젖소 경제 수명의 연장이 중요한 요인이 강조된다.

■ 사료 자원의 국내생산

경지 면적이 170만여 정보로 쌀 이외의 곡물을 생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전 국토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중 경사 15도 이하의 일부 산지를 개간 하거나 간척지 혹은 동절기 유휴 농지를 활용하여 곡물을 생산 하거나 자급 조사료를 생산 장려하여 식량 안보에 대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료마저 수입에 의존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절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초식동물인 반추 가축의 생리에도 농후사료 다급에 의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야기 하는 것이다.

배합사료의 양을 줄이고 조사료의 급여량을 늘려줌으로서 반추동물의 수명을 연장 시킬수 있을뿐만 아니라 농후사료를 절약 할 수가 있다. 국내 조사료의 수입량은 화본과 건초와 두과 건초 및 고간류를 포함하여 년 1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국내에서 청보리 혹은 호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로 대체한다면 100,000~150,000정보의 경지 면적만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연구 분야의 노력으로 청보리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동절기 작물로서 이탈리아라이그라스와 호밀의 연구 결과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위기 상황의 극복에 강한 민족 근성은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희망찬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 하리라 믿으며 글을 마칩니다. ☐